번뇌가 곧 道 이루어가는 부처님 법

☞ 19면에서 계속

러분만 고달프라고 한 거는 아니죠. 자나깨나 나도 여러분 못지 않게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말입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는 피가 흐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본의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사람을 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상세계에,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면, 마음으로써 마음껏 건질 수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신할 수 없는 공부

우리 세상이 좁고 우주 세상이 넓다고 생각지도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나 하세계에서 사는 것들이나 상세계에, 즉 말하자면 우주에서 사는 세상이나 똑같아요. 크고 작을 뿐이죠.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줄고, 또 줄이고 늘이고, 또 속아 내듯이 별성도 역시 그렇거든요. 지금 지구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듯이 우리도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초월돼서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 그대로 여여하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거, 자는 거, 할 거 없이 뭐, 전체가 다 고정되지가 않다. 그냥 찰나찰나 바뀌어서 돌아간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 만나면 이 소리 듣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소리 듣고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되고 저거 보면 저렇게 생각되고, 아니, 고정되게 한 생각을 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연연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늘이 무너져서 다 깨진다 하더라도 너만 깨지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하하하…, 세상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 이 모습은, 그런데 뭐 죽는다고 해서, 그게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씨앗이 남습니다. 그 씨앗이 남아서 또 심어지면 그게 또 모두 먹이고 되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부를 하면 그 종자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씨앗이 아니라 형체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마음껏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화해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접시비행기로 물체가 보였지만은 그건 물체 아닌 물체죠.

내가 공부하러 다닐 때는 물 한 모금 먹는 걸로도 가르쳤어요. 길을 가다 너무 기력이 없어 쓰러졌는데, 샘물이 있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그걸 먹는 데 말입니다. 물을 한 모금 먹고 두 모금 먹고 세 모금 먹으니까, '네가 그렇게 여러 모금 먹어도 소용없다. 한 모금을 먹어도 아홉 모금이고, 아홉 모금을 먹어도 한 모금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고정되게 아홉 모금이 따로 없고, 한 모금이 따로 없고, 하루가 따로 없고, 삼천년이 따로 없다, 이 세상은 모두가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 한 모금을 먹어도 아홉 모금 먹은 몫이 된다 이런 뜻이고, 둘째는 삼천년이 있어도 지금 현실이고, 하나도 셋이 되고, 셋도 하나가 되고, 그거를 알게 되니까 삼천대천세계를 둘 아니게 알게 되더란 얘기죠.

여러분은 질문한다고 뭘 자꾸 적어 가지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살면서 문득, 이 자리에서 문득 생각나서 허심탄회하게 아, 요런 건 뭘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질문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죠. 살아가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형! 이게 뭐야.' 이러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얕은 것도 아니고, 단지 평등한 가운데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다녀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자유스럽게 과거를 드나들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현실로 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뚱이와 정신계, 영원한 자기의 정신이 없다면 자기는 지금 송장이 될 텐데 어떻게 그게 둘입니까? 그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병원에 가서 마취하면 정신이 없어서 다리를 잘라 내는지 뭘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시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몸뚱이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몸뚱이 속에 또 생명들이 무수하게 들어 있는데 그거는 자기 과거를 인정하고 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 있거든요, 속에. 그 속에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가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서부터 생명들을 귀하게 생각하라. 너의 생명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너도 예전에 그렇게 해왔느니라, 그렇게 거쳐왔느니라. 그러니 업신여기지 말고 전자에 모자랐을 때의 너로 보라. 네 생명같이 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헌물 나오면 다시 굴려 새물로 바꿔쓰라

업신여기지 말고 모든 생명을 나로 보자

하나도 셋 셋도 하나

그래서 이 오분향만 잘 알면 오계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나는 이 오계를 여러분한테 전할 때 좀 달리 했죠. 술 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통질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나는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네 생명같이 생각하라, 또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술을 먹어도 식구들 괴롭게 하지말고 너가 괴롭지 않게, 망주로 하지말고 약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안팎으로 어렵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이미지를 흐리게 해서 놓고 가면 자식들까지도 언짢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부로 맺었으면 잘났든 못났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해라, 그저 요 한 생 살 거를, 이 모습으로 뭐 천년만년 살 거라고 이쁘니 미우니 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좀 그만 두고, 그저 어차피 만났으니 인연이다, 하고 그냥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얼마나 귀찮아요. 만들어 놓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털고 살 거를 하나를 더 붙여 가지고는 그냥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까지, 자식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이미지를 그렇게 남겨 놓고 간다면, 일심이 천심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요 다음엔 뭐가 또 좋을 겁니까? 또 그런 지경을 자기가 당해야 할 테니, 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했지요.

전생에 마부가 당나귀에게 어떻게나 심하게 굴었던지 이 생에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렸던 마부는 아내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맞았던 남편이 그저 술 한 잔 먹었다 하면 들어 와서 그냥 아무 거나 들어서 팽개치고 치고 박고 이러니 부인이 멍들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똑 자기가 당나귀를 때렸듯이 그렇게 받는데, 지금 같으면 뭐 이혼했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스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바지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서 뭘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야 합니까?"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그건 인과응보니라. 네가 전자에 마부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때렸느냐.

네 남편이 바로 그 당나귀였고, 그 당나귀를 때린 너가 바로 아내가 됐느니라.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을 내 어찌 하겠느냐만은 이제 마음을 고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돗자리를 말아서 꼭 매서 남편이 술이 취해 들어오면 손쉽게 집어서 때릴 수 있게끔 해 놔라. 그런다면 돗자리 줄기마다 몽둥이가 되니까 마부가 당나귀를 때린 그 수효대로 되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돗자리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서 한 이틀인가 사흘, 그걸 집어서 치고, 치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은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먹었지?" 하면서, "그런데 자네는 내가 왜 이렇게 때리지, 이상하네? 이 약한 몸을 내가 왜 이렇게 때렸지?" 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그러더니만 그 날부터 때리던 것이 싹 없어졌답니다.

업 녹이려면 관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봐! 당신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속에 업식들이 자꾸 충동질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당신 남편은 참 착해."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업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관하고 남편도 자꾸 관하게 좀 해라고 하는 겁니다. 관하는 게 돈이 드니 못하느냐, 재산이 없어지니 못하느냐, 자기네들 자기 뿌리를,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지 누굴 믿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어딜 믿을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면서 새로운 삶이 생기고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만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면서, 반갑고 즐겁고 이런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춥거나 덥거나 그걸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긴 조막댕이만한 그 모습을 싫다고 안하고, 얕보지도 않고, 그다지 높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좋을 뿐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그래요. 지금은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지만요. "스님, 글쎄 꿈에, 천야만야한 데를 그냥 뛰래요. 그런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해골이 널려 있고 길은 두 갈래로 있는데 그 천야만야한 데를 그냥 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뛰지 말고 네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 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꽉 감고 그냥 다리를 턱 떼어놓으니까 다리가 끈적끈적한 것에 묻은 것처럼 착 붙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니까 그냥 내려 가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두 갈래로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아주 험한데 지름길이라고 하고 한 길은 아주 가기 좋더랍니다. 그래서 험한 데로, 지름길이라니까 들어섰대요. 급하니까,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다고 가는데 해골바가지가 쪽 늘어섰는데 아, 거기 당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까짓 거, 이 세상에서 살면 뭘 하고 죽으면 뭘 하느냐 하고 그냥 하염없이 가다보니까 왕이 사는 큰 대궐 같은 데가 나오는데 보니깐 아무개 왔느냐 그러 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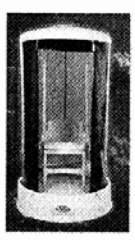
그래서 보니까, 머리카락 한 알갱이를 들고는 '이게 네 머리카락이니라. 요 머리카락 하나에 네 인생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카락을 쥐고선 아무개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죽으나 사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그 아래를 보니까 바다로 화해서, 그 바다 가운데서 왕관을 쓰고 법륜마크가 그냥 번쩍번쩍 금으로 됐는데 거기서 나와서는, '너무 상심말고 떳떳하고 여여하게 살라, 너는 부처님께서 인정을 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그런 꿈을 꿨다길래 그랬죠. "꿈꿨다고 자만하지 말어. 올라가다 떨어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그래요. 그저 항상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니깐 어떠한 것도, 사는 데에 지장이 없고 어떤 게 닥쳐도 공부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금방 돌아가고 돌아가고, 한 찰나에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자기를 자기가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자기를 자기가 우습게 보지말고, 자기를 자기가 높이지도 말고, 그냥 중심에 심봉을 꽂고, 아까 오분향 얘기했죠. 그렇듯이 다지고 나간다면 그건 뭐 100% 성공이라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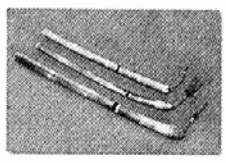
여러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저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그러는 걸 보니까 참, 저 양반들이 부처지 다른 것이 부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부처님들이 세상에 어디 계시냐 이러죠. 너무나 흐뭇해서요, 괴롭고 분잡하고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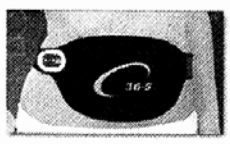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5년 12월 3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www.hamallok.co.kr 02)732-1522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 × 90cm × 172cm
· 중량 : 본체-32kg 의자-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죽 비

· 뿌리죽비(대) 30,000원
· 뿌리죽비(소) 2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 - 뿌리(대)뿌리(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0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玉 건강벨트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108 나한단주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삼보죽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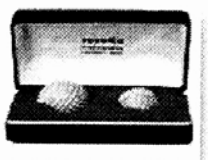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신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용량 : 600g / 가격 :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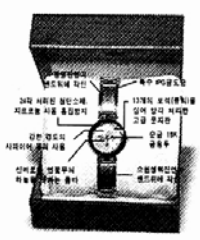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을 모듈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틀 에밀레종 : 210,000원
· 팔각틀 에밀레종 : 250,000원

만다라 옥침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을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65,000원(※ 아로마오일 10ml 포함)

만다라 옥침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 중풍.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 30,000원

연꽃 불자시계



추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임목108염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여성용 각각 119,000원

합천 전통 한과

한과 등가구 (2.75kg) 150,000원
한과 바구니大 (1.8kg) 80,000원
한과 바구니中 (1.1kg) 60,000원
한과 오동나무 (1.8kg) 50,000원
한과 잔치방 2호(0.6kg) 22,000원
한과 잔치방 3호(1kg) 33,000원
한과 잔치방 4호(1.5kg) 45,000원
경남 합천의 해인사 법경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는 가야산 자락에서 재배된 찹쌀과, 깨, 콩등 청정 원료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게 재현해낸 우리 전통의 과자입니다.

Dr.반다시(의자용)방석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옥(玉) 다기세트

각종 질병치료에 쓰이던 중국의 신강성 연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끊어졌으며 오늘날 여러 질병에 건강증진작용하는 한국춘천연옥(韓國春川軟玉)이 세계 유일한 제일 좋은 연옥이 되었다.
·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 가격 : 330,000원

참선 명상 방석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갈대 쥬스 잔 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 그자체입니다.
· 가격 : 22,000원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지단향 + 천연목향 + 향꽂이
· 가격 : 50,000원